

고흥, 엄마와 아기가 함께 웃는 하반기 ‘엄마모임’ 마무리

오감놀이와 육아 소통으로 엄마와 아기의 행복한 성장 지원



고흥군 '엄마모임' 참여자들이 아기와 함께 오감놀이를 체험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2일부터 17일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수혜자 10가정 20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2026년 하반기 ‘엄마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신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와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엄마모임’은 비슷한 시기의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아기와 함께 다양한 놀이를 체험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조모임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로 알아가기 ▲아기 달래기와 재우기 ▲우리 동네 지도 만들기 ▲아기 이유식 ▲교구를 활용한 오감 발달 놀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포도와 청포묵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오감놀이를 진행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유빈 기자

보성 농업인 선역수 씨, 추석 맞이 특수미 1,000kg 기부

보성군은 지난 14일 특량면 정홍리에 거주하는 농업인 선역수(64) 씨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특수미 1,000kg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명절을 맞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된 특수미는 특량면희망드림 협의회와 연계해 관내 경로당 50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며, 경로당 1개소당 약 20kg씩 지원된다.

선역수 씨는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이번 추석을 맞아 직접 생산한 특수미를 지역 어르신들과 나누고자 기부에 참여했다. 기부 물품은 추석 전인 9월 23일까지 각 경로당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정화 특량면장은 “기탁받은 특수미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명절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명현관 해남군수, 대통령에 균형발전 건의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역의 미래 비전을 담은 서한문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해남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명현관 군수는 16일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4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명현관은 “해남은 이미 6년전부터 RE100산단과 인공지능(AI)첨단산업을 착실히 준비해 온 지역으로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방침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지”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해남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고자 한다”고 서한문 발송의 의미를 밝혔다.

이를위해 명 군수는 AI 실증도시·재생에너지 특구 지정 등 4개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배추 파종부터 수확까지 스마트하게!

진도군(군수 이재각)은 9월 17일 지산면 앵무리 일원에서 ‘밭 농업기계 우수기술 현장 연시회’를 개최하고 배추를 기계 정식하는 등 밭 농업의 기계화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 전남광주통합특산물농업기술원,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대학교가 공동 주관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현장에 기계화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농업기계 전문지연연구회 회원과 농업인, 산업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배추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하는 방식(모델)이 소개됐다.

심토파쇄기, 자동 파종기, 휴립 피복기, 정식기, 배추 수집형 수확기를 직접 시연했으며, 콩파종기와 감자 수집기도 선보여 농업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가영 기자

4-H 장흥 회진면회, 이웃돕기 성금 기부

한국 4-H본부 장흥군 회진면회(회장 김현동)는 17일 회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백만원 이웃돕기 성금 전달했다.

한국 4-H본부 장흥군 회진면회(회장 김현동)는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회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면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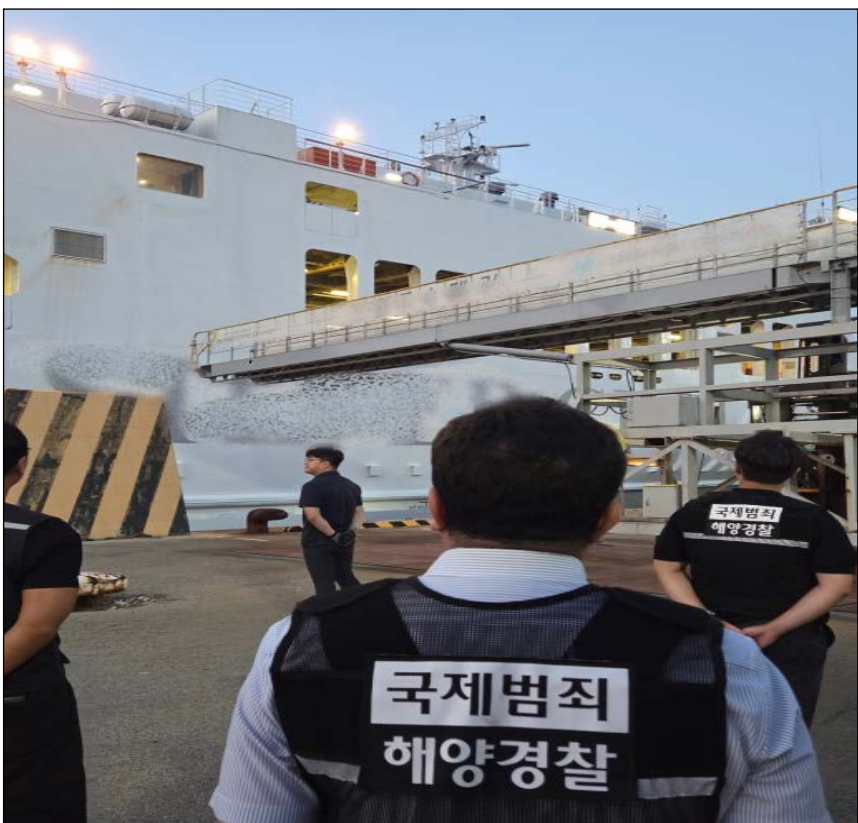
방요한 공동위원장은 “성금 기부로 따뜻한 나눔 실천을 해주신 한국 4-H본부 장흥군 회진면회 김현동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부해 주신 성금은 우리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우리 지역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정근 기자

완도해경, 추석 연휴 앞두고 여객선 이용 밀입국 등 예방 강화

섬 연계 프로그램 및 전복 깜짝 경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여객선 불시 점검 중인 완도해경의 모습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태환)는 밀입국·밀항 등 국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해상교통로를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지난 16일 관내 여객선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완도해경이 상시 추진하고 있는 국경범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명절 연휴 기간 여객선과 차량 이동량이 늘어나는 틈을 이용한 불법 출입국 등 국경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0건, 86명의 국경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승객과 차량·화물이 함께 이동하는

여객선에서 범죄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완도는 제주와 내륙을 잇는 주요 해상 관문으로, 제주 무사증입국 외국인이 여객선과 차량 등을 이용해 도외로 무단이탈할 가능성에 대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실제 지난해 5월에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완도행 여객선 내 적재된 화물차에 숨어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완도해경에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16일 완도해경은 제주와 완도를 오가는 여객선 A호(20,000톤급) 불시점검을 통해 선내 승객 및 적재화물 관리 실태와 출입구·객실 등 주요 구역의 확인하고, 국경범죄 취약요소와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레
Return to Nature, Gurye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

